

창세기(17)

우리는 전신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 나중에 일어나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자동차 사고도 예방하는 것이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성상 예방하는 것이 좀 부족한 편이지요. 차도 다 망가져야 고치고, 이빨도 다 썩어서야 고치고, 나중에는 심해져서 빼고 틀니 하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할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했지만 그래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 전체를 강해해서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그것을 남길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제가 계속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유익된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정녕 당신이 오늘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무릎 꿇는 옛날 로마 병정의 무릎 받침대처럼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탄에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자들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참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냐? 둘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쓸 것을 풍성한 가운데 공급하시겠다고 그러시더냐? 네가 뭔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시더냐? 빌립보서 4 장 19 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전도한다고 되느냐? 참으로 그러시더냐?

그러면 “글쎄 말이야.”라고 합니다. 어딘가 내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지식으로 딱 차 있으니깐 그래요. 세상 지식, 학교 가서 죽어라 공부하고 대학 교육까지 16 년 동안 땀 흘리며 시험을 보고, 패스 못하면 또 재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가서 석사학위 하지요, 박사학위 하지요. 그렇게 20 년, 25 년을 하고 나면 지식으로 딱 차면, 사탄이 와서 “너 이미 그 나무 먹지 않았니?”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리를 얘기하면, “아니지!” 합니다. 내 지식이 못 받아들여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식의 나무를 다 버려야 합니다. 지식의 나무를 짝 버려야 합니다. 저는 거듭난 다음에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은 다 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저보고 이상하네요. 바보가 된 것 같네요. 그래 난 바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으로 채워졌다. 너희는 모른다. 지금은 내가 얘기해도 모른다. 얘기 안 하겠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설교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로마서 8 장 28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그럴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 가지고는 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드린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내게는 선을 이룬다. 이거 세 가지만 안 속아도 사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리라.” 이것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말이죠. 저는 고백하는데 목회하는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지금껏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통치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20 장 1 절로 7 절까지 천년이 6 번 나오는데, “아, 그 천년은 참으로 천년을 얘기할까? 그럴 수 없어. 그것은 그저 막연하게 상당히 긴 기간이란 얘기야.”라고 합니다. 요즘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전부 그렇게 영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천년이겠니? 어떻게 하나님이 딱 천년이라고 그러셨겠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볼 때 그냥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셨겠지.” 이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탄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뱀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빛의 천사로도 나타나지 않고 유명한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말을 한 번 들으면 우리가 받은 진리가 “글쎄, 저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옛날 사도 바울처럼 보잘것없고 외모도 별로 좋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취하므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저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안수해 달라고 막 머리를 들이댁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배교의 때가 임했습니다. 데살로니카후서 2 장에 보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절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임하였다고 너무 동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배교의 날이 와야 한다. 둘째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바로 우리에게는 배교의 날이 왔습니다. 배교가 뭐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가 나타날 체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멋있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얀 옷에 하얀 구두 신은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이 보았어요.

우리는 속지 말고 이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다 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서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고 생명의 나무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계락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속지 않고 속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나무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참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